

# 文 돌발변수 경계... 과반득표 총력

# 安 '국민에 의한 단일화' 최후 승부

네거티브·가짜뉴스 감시

압도적 지지 호소하며

내외부 변수 차단 강력 대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남은 대선 기간 대세를 기반으로 과반 득표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이르며 기세를 부리고 있는 네거티브 공세와 이른바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유지,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국민'에 돌입하자 '세월호 인양거래 보도'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돌출, 막판 구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 기간 내·외부 변수를 최소화하고 돌출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 논란과 관련, 당력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진영의 시선은 이미 '압도적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 판세로 볼 때 문 후보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지만 '포스트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4일 서울 강남구 SM아티움에서 열린 '비상하라! 한류문화 콘서트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 임장하며 청소년들과 인사하고 있다.

서 적폐 청산과 개혁 완수를 통한 국민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은 압도적 승리의 기준을 '과반 득표'로 잡고 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명분도 살리면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마지노선으로 보고는 셈이다.

문 후보 측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호남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실질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반전의 계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보수 후보로의 결집 현상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도 홍준표 후보에게 악재로, 유승민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보수 표심의 분열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약진에 대해서는 '국정 파트너'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지지세가 견고한 것은 틀림없지만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개혁과 통합의 동력을 확보해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혁공동정부 수권비전 제시

'걸어서 국민 속으로' 캠페인

120시간 도보 유세 돌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을 닦새 앞둔 4일 '국민에 의한 단일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및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하겠다는 '개혁 공동정부'를 내세워 "문재인을 이길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며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캠페인에도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문재인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보수의 희망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유승민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유승민은 훌륭한 보수 후보다. 제가 당선되면 유 후보와 꼭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도 "만약 진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좋다는 분들은 심 후보를 찍어주세요. 심상정은 진보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1강 2중 2약' 체제로 굳어진 대선 구도에서 대역전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 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자신에게 표를 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경복도청을 방문, 도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집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자신과 문 후보 간에 '국민에 의한 단일화' '국민에 의한 결선투표'를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는 민주당 '잡홍'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보수 진영의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개혁 공동정부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혀 합리적 진보 및 보수세력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혁공동정부에 대해 국회 추천 책임총리 및 민정수석실 폐지를 포함한 권력분산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이후 개혁공동정부에 참여한 구체적인 인물군을 제시해 수권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이날부터 '걸어서 국민 속으로'를 기치로 유세차를 버리고 골목골목을 도보로 유세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개혁 공동정부론은 안 후보가 집권하면 합리적 진보와 보수를 포괄해 나라가 전진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洪, 보수층 대결집에 주력

## 沈, 두자릿수 확보에 사활

## 劉, 젊은 표심 공략에 올인

TK·충청권 지지층 단속

문제인과 양강구도 안간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마지막 대선일정을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이를 위해 4일 대구·경북(TK), 충청, 강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모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뚜렷한 지역들이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대선일까지 닦새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 단속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영남·충청·강원에서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물고 오겠다는 계산이다.

홍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막바지에 동반풍이 태풍으로 변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같이 부는 바람을 합치면 이길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파 대결집으로 확실한

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투표일 전날 부산·대전·대구를 한 번씩 도는데 경북은 다시 오기 쉽지 않다"며 "그래서 오늘 안동과 영주 등 잔여 지역을 훑으면서 TK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날 안동 유세에서 "이제 진박(진박근혜)들 당원권 정지하고 그런 것을 다 용서하자"면서 "(진박계인) 이정현·정갑윤·서정원·최경환·윤상현 다 용서하는 게 맞다"며 TK 보수 유권자들에게 구애했다.

이어 충청에서는 지역 공약을 환기하면서 '영남·충청 연대론'을 내세우고, 강원도 동해 유세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에 '안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또 막바지 대선판을 '문제인대 홍준표'의 양강대결로 재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지율 상승 실제 투표 연결

진보진영 지지기반 다지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막바지 선거 운동 기조는 '지지층 깨닫기'다. 기존 유세 기조에 변화를 주기보다 최근 상승세인 지지율을 실제 투표로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통해 인정받은 실력을 표로 연결시켜 진보정치 영역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노화찬 상임선대위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심 후보 유세장에 다른 후보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젊은이들이 참 많다"며 "상처받은 국민과 절망의 나라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청년들을 직접한 명한 명씩 안아주는, 형식적인 스킨십이 아니라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허그 대행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아 "단순히 아이돌 스타가 팬을 안아

주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청년·여성·노동자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다짐을 헤드라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또 "승자가 되는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지만, 민주당이 승자에 이어 독식까지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밥상에 거위의 간도 있고 돼지의 간도 있는 것은 좋은데, 왜 벼룩의 간까지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을 문 후보 측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이날 제주와 거제를 잇따라 방문했다.

제주에선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정문과 동문시장을 찾아 유세에 나섰다. 핵심 지지층인 20대를 타깃으로 하는가 하면, 시장 상인 등과 만나 제주 민심 사로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거제시 거북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희생자 유가족, 사고로 부상당한 노동자 등을 만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가 돌며 학생들 접촉

"개혁보수 가치 걸고 완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선거 막판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유 후보가 이처럼 청년층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원조 보수세력이나 노년층을 공략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젊은이들을 주타깃화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젊은층을 공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아울러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라는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다른 연령층보다는 젊은이들이 유 후보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 이후 오히려 급증한 온라인 당원 가입자의 상당수가 젊은층이고, 대학생들의 후원 참여도 높아졌다.

유 후보는 4일 하루 종일 서울 시내 대학가를 돌며 청년층 공략에 올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이화여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난 뒤 신촌의 한 상가 앞에서 젊은이들과 소통했다.

점심시간에는 건국대 앞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했고, 오후에도 한양대, 흥대, 성신여대를 찾아 대학생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를 찾아 거리인사를 했다.

유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유권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이 또한 젊은이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캠프 측은 유 후보가 최근 이순신 장군의 '신애견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까'라는 명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유승민의 12척에 승선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 표는 사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보수의 지표다'라는 메시지로 막판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

#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5월 21일, 5월 28일 단 2회!! 선착순 30명!!  
4일 299,000원~

- 공통포함사항:편도항공, 편도선박, 현지차량, 일본현지식사
- 불포함사항:기사, 가이드경비(₩30,000/인), 국내수송(₩35,000/인)

美親특가 항공권 (공항세 및 유류세 포함)  
매주 일요일 무안 출발 - 기타큐슈 편도 39,800 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OY TOUR CO., LTD

NAVER 조이투어 검색  
TEL: 062-234-3222 FAX: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여행경비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회 및 부속 비용, 유류료포함 포함 / 교통편:항공 및 전철버스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항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